



충청북도 의회 소식



150만 충청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편집인 의회사무처장/ 주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문화동) / 전화 (043)220-5123/ (월간)

제260회 임시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및 도정 주요현안 심의

충청북도의회는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충청북도 인사 의회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승인하고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기타 현안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는 상반기 의원 직무연찬, 충청권 광역의회 의장단 간담회, 고속철도 오송역사 특대역 건설을 위한 건의, 한·미 FTA협상 타결 설명회,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시·도의회 토론회 개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또한 충주의료원 신축부지, 충청북도 교직원 복지회관, 수해복구사업장 등 도정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현



▲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 주요현안 및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지확인을 하였으며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른 충청북도의 대응방안, 결산검사시

작안사항에 대한 직무연찬과 농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충청북도의회는 정부의 오송역사 건립계획이 단순한 환승역으로 설계가 되고 있어 충북선과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6호선 14선의 특대역으로 건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건의서

수신 :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연구원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대한교통학회장

150만 충청도민과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건설 결정(2005. 6. 30)에 대해 대대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내는 동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역으로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X자형 광역철도망의 허브(HUB)역으로서 그 기능과 위상에 맞는 오송역사 건립을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오송역사 건립계획은 150만 도민의 여망과는 달리 역사 규모가 4층 10선으로 축소되었으며, X자형 철도망 구축이라는 당초 취지에 걸맞지 않게 오송역사가 충북선과 단순환승역으

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최대 수요자인 충북권과 강원권 주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으로 150만 충청도민과 충청북도의회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충북선과의 연계를 통한 X자형 광역 철도망 구축, 오송분기역을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허브(HUB)역으로 건설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부응할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도민의 여망을 담아 다음과 사항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정부는 오송역이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의 중심역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북선과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6호선 14선의 특대역으로 건설하라.
2. 정부는 미래를 보는 혜안을 가지고 강원권과 경북권을 연결하는 충북선이 일반전철이 아닌 KTX로 연결 운행되도록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라.
3.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역으로서 그리고, 고속철도 X축의 중심에 위치한 허브(HUB)역으로서 오송역의 기능과 위상에 맞게 오송역사를 확대 설계하라.

2007. 5. 1
충청북도의회 의장 오장세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

- 회 기 : 2007. 6. 11 ~ 6. 18(8일간)
- 의사일정

일 시	부의안건
6. 11. (14:00)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1.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2007. 6. 11. ~ 6. 18.(8일간) 2. 기타 안건 처리
6. 12. ~ 6. 17.	● 본회의 휴회 ※ 상임위원회 활동 - 의안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방문 - 기타 안건 처리
6. 18. (11:00)	● 제2차 본회의 1. 부의 안건 처리 2. 기타 안건 처리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계획

위원회	주요 활동 계획
의회운영위원회	● 제26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기타 현안 처리
행정자치위원회	● 충청북도 인사행정 관련 행정사무조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진천·음성혁신도시건설 추진현황에 대한 간담회 ● 기타 현안 처리
교육사회위원회	● 조례안(의원발의)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 조례안(의원발의) - 충청북도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 개정안
건설문화위원회	● 환경분야에 대한 의원 직무연찬 추진 ● 도내 환경대상시설 등에 대한 현지확인 ● 기타 현안 처리

개회사

성실하고 사명감 있는 자세로 의정운영에 협조를...



오 장 세 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민생현장 방문은 물론 지역별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주민여론 수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사업 추진 등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6일에는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증설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150만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일궈낸 결실로 국내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할 것이라 자부합니다.

또한 하이닉스 매그나칩 하청지회 사태가 원만하게 수습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에 대하여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관문역과 고속철도 X축의 중심에 위치한 역으로서 그 기능과 위상에 걸맞게 오송 역사가 확대되어 건설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날을 비롯하여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이 있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가정의 달 행사가 단순한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발전하도록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의 달을 맞아 내 가정은 물론 이웃과 사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회기는 9일간의 일정으로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전

을 다룰 예정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도민을 위하여 성실하고 사명감 있는 자세로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일손 돕기를 전개하여,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금년 한해도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직무연찬 · 충청권 의장단 간담회



▲ FTA연찬회 5월 1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전체의원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직무연찬을 실시하고 있다.



◀ 의장단 간담회

5월 9일 충북·대전·충남도의회 의장단이 대전에서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덕연구개발 특구 육성, 차질없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한·미 FTA협상에 따른 공동대응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조하기로 협의하고 있다.

홍수면부지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기어



송 은 섭 위원장
(건설문화위원회)

으며, 이를 토대로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또한 송의원의 국회정책건의와 농림부에 대한 끈질긴 설득으로 2007. 5. 17 농림부에서 확정 발표하는 결실을 얻었다.

이 제도의 보완으로 전국적으로 홍수면부지를 점용하여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며, 금년부터 저수지 홍수면부지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 요건과 한국농촌공사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치면 농지 기준에 준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금년도분도 2007. 6. 10까지 추가로 신청하면 직불금 지급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저수지 공유수면 점용허가 농가 444호 1004필지, 224.6ha 에 대한 직불금 2억 6천여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전망이다.

충청북도의회 송은섭(건설문화위원장)이 고사직전에 있는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3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저수지 홍수면부지가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정부정책변경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 2006년 2월 충청북도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송 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지사에게 쌀소득 등 소득보전직불제 제도 보완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인 농정시책을 펴 달라는 촉구 발언을 한 바 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1조 3,592억원 수정 의결 -3억 9천만원 삭감-



▲ 간담회 5월 16일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예산안 심사 5월 16일 2007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주식 의원)는 제260회 임시회 회기중인 5월 16일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였다.

이번 종합심사는 5월 15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다.

심사결과 세출예산 1조 3천 592억 7천 257만 5천 원 중 사업의 타당성 결여와 추진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교직원 국외연수 등 29개 사업 3억 9천 93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적극적으로 계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교직원 명예퇴직수당의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부합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주문하였다.

또한 일반운영비 등 경감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노력할 것과

시설사업비 소요예산은 시설목적에 맞게 명확히 사업비를 산정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설사업의 목적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 '07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

(단위:천원)

구 분	확정예산액	제출예산액	비 고
합 계	1,359,272,575	1,359,272,575	399,320 금액 예비비로 편성
학교교육	432,955,378	433,151,738	196,360 금액 예비비로 편성
유치원	21,214,036	21,214,036	0
초등학교	149,309,191	149,334,191	25,000 금액 예비비로 편성
중학교	115,216,386	115,316,346	99,960 금액 예비비로 편성
고등학교	123,750,751	123,822,151	71,400 금액 예비비로 편성
특수학교	22,953,550	22,953,550	0
기타학교	511,464	511,464	0
평생교육	5,115,941	5,197,001	81,060 금액 예비비로 편성
급여관리	848,763,418	848,763,418	0
교육행정	63,978,791	64,100,691	121,900 금액 예비비로 편성
교육위원회	497,572	497,572	0
선거관리	4,000,000	4,000,000	0
본청	23,638,616	23,690,516	51,900 금액 예비비로 편성
지역교육청	15,492,526	15,562,526	70,000 금액 예비비로 편성
교육지원기관	20,350,077	20,350,077	0
기타경비	8,459,047	8,059,727	
지방채상환	200,000	200,000	
제지출금	166,694	166,694	
예비비	8,092,353	7,693,033	

의회운영위원회

제261회 임시회 회기 8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제260회 임시회 회기 중 5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6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제26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7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1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부의된 기타 안건을 처리하며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시찰을 실시하며 위원회에 부의된 의안에 대한 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충청북도의회의 의결 수렴으로 의사일정을 '07년 6월 11일로 변경할 예정)

아울러, 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 연찬회에 대한 실시 시기와 장소 선정 등에 관한 논의를 한 결과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향후 의정 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찬주제나 실시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해서는 차후 운영위원 간담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간담회 ▶

5월 10일 제1차 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연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 의사일정 심사

5월 10일 제26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



▲ 조례안 심사 5월 14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2007년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9일간 열린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충청북도 인사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

정사무조사계획서의 채택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현지확인 및 의견수렴 간담회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5월 14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 조례 제·개정안 5건을 원안가결하였다.

주요내용은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

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 한월 참여 시 공가 인정, 특별휴가에 입양휴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도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시험업무 추진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각종 시험수당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급기준이 변할 때마다 조례개정을 고려해야 하는 입법상의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한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개최,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인력 보강 등 충청북도의 지방공무원 정원 2,629명을 2,649명으로 20명 증원하고자 하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밖에 박재국

위원의 6인이 발의한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본 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 도내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5월 18일에는 충청북도 인사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각계의 의견수렴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수립하여 채택하였다.

주요내용은 조사위원회 구성은 이필용 행정자치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7명으로 하였고 충청북도 및 소속기관의 정실·보은 인사 의혹에 대한 전반적 사실관계 조사, 충청북도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관련 사항을 조사범위 및 목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7년 5월 18일부터 2007년 7월 17일까지로 하고 조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였다.

교육사회위원회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 예정부지 현지 확인

교육사회위원회는 2007. 5. 10 ~ 5. 18일까지 열린 제260회 임시회기중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충주의료원 이전신축부지 및 2005년 개관 운영중인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운영현황을 청취하기 위한 현지확인 및 자문위원과의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사업 추진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학교평가 미흡 교지원의 17개 단위사업비 339,32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의 추진현황 청취와 신축예정부지 실사를 통해 부지선정의 적정성을 현지 확인하였으며, 충청북도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중인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시설현황을 둘러보고 시설관계자로부터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또한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른 우리도의 대응방안』(환경분야 류을열 자문위원)과 『2006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시 착안사항』(교육분야 한현구 자문위원)을 주제로 한 자문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다.

예산안 심사 ▶

5월 15일 2007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 현지확인

5월 11일 충주의료원 관계자로 부터 이전 신축부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충북농협지역본부 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



▲ 현지방문 5월 15일 충북농협본부를 방문하여 농협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윤숙)는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농협충북본부 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산업경제위원회는 5월 10일 오후 한·미 FTA협상 결과 설명회 전체의원 직무연찬회가 끝난 후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면 주요업무 및 의사

일정을 협의하였다.

또한 5월 15일에는 최근 한·미 FTA협상타결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촌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듣고자 농협충북본부를 방문하였다.

산업경제위원회는 한·미 FTA 협상이 애초 협상

대상이 아닌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와 쇠고기의 수입 개방 등 우리 농업 부문에 엄청난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타결되었으며, 도내 농축산물 주요품목의 피해규모를 1,300억원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 한 뒤 통상압력과 경쟁력 강화라는 힘겹고 끝없는 도전과 시련의 한 가운데 있는 농민들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농협에서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농업인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기업과 소비자, 고객에게 기대에 부응하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농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농업인 생활안정 등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옥천에 소재한 국제종합기계가 전북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을 때, 농협충북본부에서 나서서 국제종합기계의 생산 농기계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국제종합기계가 옥천에 잔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농촌경제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앞장서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1사 1촌 자매결연 사업 등에도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건설문화위원회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 현지 확인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송은섭)는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9일間に 걸쳐 도내 대형 공사 및 수해복구 현장 점검, 집행부와 의 간담회, 도내 주요 행사에 참관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금년도에도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집중 호우 대비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전년도 수해지역이 또 다시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관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단양군 영춘면 일대 등 도내 수해복구 현장과 청풍대교 가설 현장 등 주요공사 현장을 면밀히 점검 확인하면서, 수해복구 현장에서는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대형교량 공사 등에 대하여는 자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통하여 항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현지 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체육분야에 대한 집행부와

의 간담회에서는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07년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제1회 충청권생활체육대회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도민들의 활발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 체육 동호인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도민 생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업무담당부서에 독려하였고 충북의 문화상품 개발에 대한 간담회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상품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축제와 같은 무형의 행사를 상품자원으로 집중관리하여 지역 소득원을 창출하는 것 역시 중요함을 강조하는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역발전에 대한 높은 열의를 보였다.

한편, 상수허브랜드 축제, 2007 청풍명월 유채꽃 축제 등 도내 축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축제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충북 이미지에 걸맞는 고급 브랜드 축제 발굴과 개발'에 대한 논의도 함께 가졌다.

간담회 ▶

5월 10일 소관부서 관련 소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 현지확인

5월 15일 단양군 사지원 도로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하이닉스와 경제특별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조영재 부의장

지난 4월 26일 우리 충북이 염원하던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기공식이 개최되어 본격적인 공장조성에 들어갔다.

그 동안 수도권과의 힘겨운 경쟁 속에서 150만 충북도민의 의지를 모아 얻어낸 뜻깊은 성과이며, 우리 충북이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충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충북도에 따르면, 옛 삼익부지 10만8천㎡의 터에 북측으로 증설되는 이 공장은 2008년 4월까지 4조3천억원이 투자되어 12인치 웨이

퍼 월 8만장을 양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되고, 2009년까지 3조원이 추가로 투자되어 제2생산라인도 설치된다고 한다.

하이닉스는 이와 별도로 기존 청주공장에 500억원을 투자해 공장증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의 옛 백운부지에도 1조4천억원을 들여 2009년까지 후처리 공정의 패키지 공장을 완공하기로 하는 등 청주에 모두 8조7천6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경우 직접 고용효과만 8천여명에 이르고 154개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할 경우 고용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청주시는 하이닉스 추가 증설공장 유지를 위해 청주시 외북동 일원에 86만㎡의 지방산업단지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공장 유지가 성공한다면 청주는 경기도 파주의 LG LCD단지, 충남 아산의 삼성전자 타운과 버금가는 거대한 하이닉스 타운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인근 청원군의 오창과 확산단지·오송생명과학단지 등과 함께 IT·BT 중심의 첨단산업 발전동력을 창출하고, 경부·중부고속도로, 청주국제공항 등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청주·청원은 새로운 첨단산업의 메카로, 국가

발전의 중추지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발전 면에서 만년하위권의 전통적인 농업도였던 우리 충북으로선 참으로 고무적이고 가슴벅찬 계획이 아닐 수 없으며,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의 원대한 목표에도 한발 더 다가서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민선4기 도정의 최우선과제인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꿈이 아닌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북이 잊지 말고 반드시 명심해야 할 대전제가 있다.

그것은 150만 충북도민, 아니 4천9백만 국민의 합의를 거쳐 이 시대의 가치로 공감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이다.

현재 청주·청원군의 총 면적은 9만4천㎡로 도 전체면적의 13%에 불과한데 인구는 76만 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시·군의 인구는 줄고 있으나 청주·청원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도 청주·청원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유(無有)보다 불균(不均)이 더 두렵다"

우리는 진실로 충북도민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이 '경제특별도 건설'의 단단한 기반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경제특별도 건설'이 충북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속에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녹아들도록 신명을 바쳐 노력해야 한다.

중국의 격언에 "무유(無有)보다 불균(不均)이 더 두렵다"라는 말이 있으며, 조선시대 실학의 대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백성의 불만은 불과(不過)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균(不均)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충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낙후지역인 영동군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모두 특히,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에 도정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충북도의 수뇌진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디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과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용광로를 거쳐 도정목표인 '150만 도민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충북 실현'이라는 풍성한 결실로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지역축제 1조원시대 브랜드를 키우자



김화수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축제의 계절이다.

'지역축제 1조원 시대'라는 말에 걸맞게 전국은 바야흐로 축제로 들쭉여 있다.

우리 가족도 지난 주말을 맞아 모처럼 경기도 인근 지역에 있는 지역축제 행사장을 찾았다. 그런데로 이름이 알려진 축제와 기대했던 막상 현장에 가 보니 축제 이름만 다를 뿐 지금까지 보았던 여타의 축제들과 비뚤어지지 않았던 내용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망감만 잔뜩 안고 돌아왔다.

문화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화관광 축제규모가 1996년 8개 축제, 148억원 규모에서 2005년 현재 45개 축제, 1조원 이상의 규모로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성장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64개인데 반해 경기도가 140개로 가장 많고 경남지역 100개, 경북 99개, 전남 90개, 강원 86개, 부산 81개, 서울 70개, 충남 69개 등의 순으로 열리고 있다.

정부지정 축제만 봐도 1995년 2개 축제에 30만 명이던 방문객이 2005년 45개 축제에 3,200만 명으로 증가, 10년 새 방문객 수가 100배가 되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짧은 기간 우후죽순 생겨난 축제들이 많다보니 몇몇 행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특산물 홍보나 판매에 치중하거나 목적불분명한 주민행사를 그럴싸하게 포장해 만든 단채장 생색내기용 축제들로 전락한 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심지어 지자체의 눈 먼 예산을 겨냥한 전문기획사들이 성공한 타 지역의 행사를 모방해 가짜 축제까지 등장하는 등 그 폐단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사회의 지역축제는 골목 없는 공장이란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엄청난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문화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은 전체 124개국 가운데 42위에 불과하다. 아시아권에서 흥

콩(6위), 싱가포르(8위), 일본(25위), 대만(30위)에도 뒤진다.

관광수지 적자폭은 갈수록 늘어나 지난해는 85억 달러로 벌어들인 돈은 52억 달러인데 반해 우리 국민이 해외 관광에 쓴 돈은 137억 달러에 이른다.

관광객 숫자도 큰 차이가 난다. 지난해 해외 관광에 나선 우리 국민 수(1,160만 명)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의 수(615만 명)는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만큼 외국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문화산업전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각 지자체가 앞장서 낭비성 지역축제를 폐지하고 대표성을 갖는 축제에 올인 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시도하고 있어 그 성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축제의 성공 여부는 차별화에 있다.

그 지역 그 행사만의 주요한 매력요소와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야 한다.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처럼 지역적 소재를 통해 대중적 매력 지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지역축제를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

해선 지역의 고유문화를 특산품과 접목해 '브랜드화' 하는 등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

이데리 하면 가구, 스위스 하면 시계, 프랑스 하면 패션, 일본의 도요다시 하면 자동차가 연상되듯이 지명과 문화상품이 하나의 등식으로 성립되는 대표문화상품도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지역의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시·군의 상품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와 명품화 육성을 위한 마케팅 유통전략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형만 거대한 공룡이 돼서는 안 된다.

주민이 없는 축제는 의미가 없다. 지역축제는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연출하는 화합의 행사다. 축제가 관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보니 주민참여가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축제가 부여하는 즐거움과 감동도 사라질 판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가치로도 환산되지 않는 축제의 진가일 것이다.

관광은 즐거움과 행복을 파는 일이다.

우리가 즐겁게 살면 외국인들이 그 즐거움을 사러 올 것이다.

주요처리의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현혈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주요내용】

-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
-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
- 현혈 참여시 공가 인정.
-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의한 현혈에 참가할 경우 공가로 처리하여, 공직사회에 현혈참여 확대 유도.
- 특별휴가에 '임양휴가제' 등 도입.
-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임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의 활성화 도모.
-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
- 여성공무원이 임신중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출산휴가.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이 국가 및 타 시·도의 기준보다 낮아 시험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

하고 있어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과 소방관서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함.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2,629명 ⇒ 2,649명 (증2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71명 ⇒ 1,477명 (+6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7명 ⇒ 70명 (+3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 1,047명 ⇒ 1,058명 (+11명)
- 직급별 증감내역 : 일반직 +9명, 소방직 +11명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감면규정을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도 감면대상에 포함.
-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

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기업도시의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

【주요내용】

- 감면 조례 운영 목적의 명확화를 위한 일부 내용 보완.
- 감면 근거 범조항 추가 및 감면 목적의 명확화.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단체 포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15년간 취득세·등록세 면제.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15년간 취득세·등록세 면제 감면결정 통지서 서식 마련.
-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함에 있어 별도의 통지 서식 마련함.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충청북도내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 지방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함.

【주요내용】

- 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함.
-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충청북도 인사 의욕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 원안가결

【조사 목적】

- 충청북도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관련 사항(임직원 채용관련 등), 기타 충청북도 인사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문제의 쟁점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함.

【조사 방법】

- 조사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열람 요구 등 실시.
- 각종자료에 대한 검증 및 감정 실시.
- 조사와 관련된 기관방문조사.
-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
- 증인, 참고인 변경 또는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정함.
- 회의의 공개여부, 관련 문서 및 조사결과 보고서의 공개범위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제안이유】

•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반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건강보감

한약에 관한 상식

1) 여름철에 한약을 먹으면 땀으로 빠져 나가는가?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지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므로 이때 먹은 한약은 땀으로 빠져나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아프다고 하면서도 '가을이 나 되면 약을 먹어야겠다'며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여름철에 먹은 한약은 모두 땀으로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약은 1년 중 어느 때라도 당시의 건강상태와 증상에 맞춰 복용하면 되는 것이지 계절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여름의 고온 다습한 기후 조건에 따라 더위로 인한 질병이 많이 발생하

므로 보약을 쓸 경우 서늘한 성질을 가진 보약을 써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2) 녹용을 먹으면 아이의 머리가 나빠지는가?

녹용은 어린이의 성장, 발육을 촉진시키고 간장기능을 활성화시켜 빈혈환자의 조혈기능을 촉진하며, 쇠약해진 심장기능을 강화하는데 현저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울러 신경쇠약이나 병후쇠약에 사용하면 강장작용을 발휘합니다. 또 장기의 기능이 강화되면 뇌 세포의 활동이 활발하여 머리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녹용을 먹으면 아이 머리가 둔해진다는 말을 듣고 난처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약도 적절치 못하게 쓰거나 약효를 믿고 남용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키기 마련이며, 녹용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물과 약도 그 사용도가 있듯이 보약도 무조건 많이 먹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녹용을 사용할 때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3) 한약을 먹으면 살이 찌는가?

일부 여성 환자나 비만한 사람들은 한약을 먹으면 살이 찌서 미용 또는 건강

상 좋지 않다고 복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살이 찌는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평소 소화가 약한 사람이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한약을 먹어 밥맛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되어 살이 찌는 경우도 있으나 한약이 모두 살을 찌게 하거나 한약 자체가 살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약으로 병적인 비만을 치료하여 우수한 효과를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임신했을 때 한약조차 먹어서는 안되는가?

임신시에는 독성이 있는 약물들은 기피해야 합니다. 특히 기피 약물들은 평상시에도 신중히 사용해야 하지만 임신 중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약물을 제외한 대다수의 한약들은 임신에 전혀 해독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태기를 견고하게 하며 순산을 도와주고 임신기에 나타나는 각종 질병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치유케 하는 처방들도 상당히 연구, 개발되어 있습니다.

심한 입덧, 임신중에 감기로 인한 기

침, 태기가 불안하고 하혈하는 경우 등에는 급히 한의사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방으로 치료를 받아야 유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한약을 먹으면 간이나 콩팥이 나빠지는가?

음식물과 약물은 대부분 위장을 통해 흡수되어 간으로 보내져 분해·합성되며 노폐물은 신장을 거쳐 몸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므로 복용한 한약은 피의 흐름을 타고 간장과 신장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가끔 한약을 먹으면 간이나 신장에 해롭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병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사람을 죽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잘못 쓰인 약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약이나 양약이나 잘못 쓰면 간이나 신장에 해를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히려 한약은 간염이나 간경화, 황달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신장염과 신부전증에도 증상을 호전시켜 낫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태영 <한의박사>

의원동정



◀ 이기동 의원
(음성 제1선거구)

5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실시된 재경 음성군민회에 참석, 재경 인사와의 환담 및 관계자 격려



◀ 임 현 의원
(영동 제1선거구)

5월 22일 영동군에서 실시된 영동군직장단체 배구대회 개회식에 참석, 선수 및 행사관계자 격려



◀ 장주식 의원
(진천 제1선거구)

5월 21일 청주 한별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제36회 전국소년체전 결단식에 참석, 선수 및 관계자 격려



◀ 최미애 의원
(열린우리·비례대표)

5월 22일 청천 자연학습원에서 실시된 도·시·군 여성정책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대상 성인지에 대한 여성정책 강의



◀ 박종갑 의원
(청원 제2선거구)

5월 17일 청원군 오창읍에서 개최된 친환경육묘장 준공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발전방향 논의



◀ 이규완 의원
(옥천 제1선거구)

5월 11일~13일 옥천군 일원에서 열린 제20회 지용제 행사에 참석, 관계자 및 참석자 격려



◀ 이대원 의원
(청주 제2선거구)

5월 14일 청주 리호관 광호텔에서 실시된 수도권 과밀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토론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이영복 의원
(보은 제2선거구)

5월 8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 참석자 및 관계자 격려



◀ 이언구 의원
(충주 제1선거구)

5월 18일~26일 충주시 주관으로 미국에서 실시된 선진 기업도시 벤치마킹 활동에 참석, 성공적인 성과도도 추진



◀ 송은섭 의원
(진천 제2선거구)

5월 24일 진천군 초평면 두타산 영수사에서 실시된 석가탄신일 봉축법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김화수 의원
(단양 제1선거구)

5월 22일~27일 단양군 소백산 연화봉에서 열린 제25회 소백산 철쭉제 개막식에 참석, 관계자 및 참석자 격려



◀ 오용식 의원
(괴산 제2선거구)

5월 10일~11일 괴산군 문광면, 사리면 일원에서 실시된 경로잔치 행사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연만호 의원
(충평 제2선거구)

5월 17일 청주농고에서 실시된 제36차 청풍명월 영농학생진전대회에 참석, 현안청취 및 관계자 격려



◀ 조영애 의원
(영동 제2선거구)

5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실시된 「밤늦은 토론회」에 참석, 한·미FTA 농업대책 논의 및 관계자 격려



◀ 이종호 의원
(제천 제1선거구)

5월 10일 대전에서 실시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석, 지방의원 정계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등 현안 협의



◀ 김한동 의원
(괴산 제1선거구)

5월 12일~13일 괴산종합운동장에서 실시된 제4회 대한민국 축구사랑 전국축구대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말뚝이 세상돌이〉

권도중래(捲土重來)와 자중지난

권도중래란 한번 패전한 군사들이 다시 세력을 회복하여 땅을 맡아 올릴 듯한 기세로 다시 도전해 온다는 뜻이지만 요즘은 실패를 딛고 재기한다는 비유로 널리 쓰이는 말이다.

그 출처는 당나라 말기에 두보(杜甫)와 그 시풍(詩風)이 비슷하여 소두(小杜)로 불릴 만큼 이름이 높았던 시인 두목(杜牧)의 시 '제·오강정시(題烏江亭詩)'다.

승패는 병가에서 기약할 수 없는 일이니
(勝敗兵家不可期)
패해도 부끄러움을 참는 것이 남아 아닌가
(包羞忍恥是男兒)
강동 땅 젊은이들 중에는 준재가 많은데
(江東子弟多俊才)

권도중래하면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捲土重來未可知)

이 시는 유방(劉邦)과의 최종 결전에서 패한 항우(項羽)가 단신으로 오강(烏江: 양자강 지류)까지 도망쳐와 스스로 칼을 뽑아 제 목을 치고 죽은 일을 안타까워하

며 지은 것이다.

유방에게 패한 항우가 단기필마로 오강까지 도망쳐 왔을 때 오강의 정장(亭長)이 배를 한 척 준비하고 있다가 항우에게 권했다.

'대왕께서는 어서 강을 건너소서. 강동(江東)은 작은 땅이지만 왕 노릇하기에 족한 곳입니다. 제가 건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항우는 정장의 권유를 거절했다.

'전에 나는 강동 청년 8천을 거느리고 이 강을 건넜다. 이제 그들을 모두 죽이고 나 홀로 남았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의 부형을 대하랴.'

그리고 그는 칼을 뽑아 스스로 제 목을 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조선시대 사상의학(四象醫學)의 선구자인 이제마(李濟馬)는 통감(通鑑)을 배우다가 이 대목에 이르러 통곡하고 사흘이나 밥을 굶었다. 세월의 격차를 넘어 한 호걸의 비참한 최후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오강정시를 남긴 두목과 상통했던 셈이다.

권도중래, 이제 이 말은 패전군이 전열을 정비하여 재도전한다는 뜻 이외에 재기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다짐하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 삼자가 권하는 말로 쓰인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운동경기에 패한 사람, 선거전에 패

어들었다 낙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 권도중래로 재기를 꿈꾼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며 실패의 원인을 찾아 수정·보완하고 도전 상대나 목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항우의 처방을 마련하는 건 필수다. 성취에의 장애요소는 최소화하고 가능성은 최대한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두목이 안타까움을 시로 적어 남기고 이제마가 통곡과 식음 전폐로 절痛함을 표했던 건 결출한 영웅 항우가 권도중래하여 재기할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는데 대한 애석함 때문이었다.

자고로 영웅호걸에는 세인의 기대가 따른다. 통치자가 무능하여 제구실을 못하거나 흑세무민의 폭정으로 난세에 처할수록 그 기대는 더욱 크게 마련이다. 제민구세(濟民救世)의 길을 영웅이 열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대선 예비후보들 가운데 한나라당의 이·박 두 후보를 선호하는 여론이 70%를 넘는다. 여론 70%라는 수치는 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치요 일면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치와도 큰 차이를 둘 수 없는 수치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는 '한나라당이 예뻐서가 아니라'는 이회창씨의 말대로 한나라당이 '제민구세'의 길을 열어줄 것이

라는 확실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난세(?)에 허덕어 온 민심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택한 길인 것이다.

대선에 두 번 실패하고 가슴을 치던 한나라당은 그나마 권도중래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지난번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선승리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최소화하고 가능성은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의 집안싸움 소리가 울 밖으로 새어나와 유권자들의 가슴을 흔들어놓고 있다. 두 후보가 경선 규칙을 놓고 '판나라당'으로 갈라설 듯 막가던 길은 겨우 수습이 됐지만, 검증공방까지 갈아 앉고 화합의 손을 잡은 건 아니다.

권도중래할 절호의 기회를 자중지난으로 허송한다면, 아직은 대세가 잡히지 않은 비 한나라당 권역에서 의외의 후보가 나타나 한나라당의 70% 지지율을 궤도난마로 짓쳐나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설마 하고 방심하다간 한나라당은 정말로 '판나라당'이 되거나 '恨나라당'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씩씩없는 정당, 집안싸움에 목매는 별 볼일 없는 후보를 영원히 짝사랑할 유권자는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변덕 탓이 아니라 소신 때문인 것이다.

안수길(소설가:청주문인협회 회장)